

“병아리 생산조절 외엔 대안없다” 공감표시

□ 정리/김동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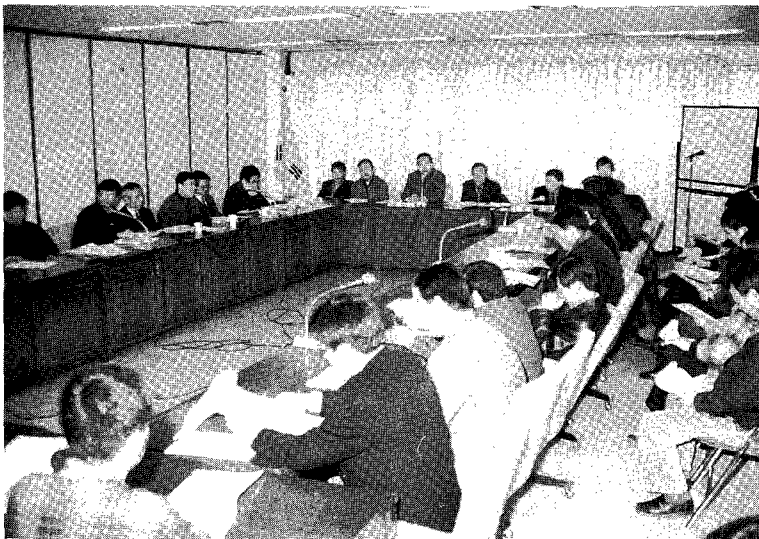
외 환위기로 인한 IMF 태풍과 사료파동이 일기 시작한 지난 12월 이후 양계농가들의 경영난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기 시작하였다. 사료가격이 50% 가까이 인상되면서 육계의 생산비는 1,500원, 육계 병아리 생산비는 420원을 기록했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지수도 40%정도 감소한 것으로 느

껴지고 있다. 이와 반대로 육계 실거래 가격은 1,000원~1,200원에 머물렀고 병아리 가격은 100~200원 시세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육계업계는 물론 육용종계업계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많은 농가에서 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생산을 줄여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같은 소비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열업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계열농가에게 지급하던 육계 사육비 및 구매비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4일 축산농가 구제차원에서 축산계열화업체 긴급 운영자금 570억원을 편성하여 이중 양계분야(계열업체)에 389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월 14일 본회 종계부회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종계인들은 정부의 운영자금이 계열주



△ 지난 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는 계열업체 긴급 자금지원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당면현안을 논의키 위해 종계·부화인들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체에 긴급 지원된다는 것에 대해 업계 전체적으로 볼때 형평성을 잃은 편파적인 지원이라 의견을 모으고 정부지원자금 방출을 전액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화성 지역 종계인, 이천지역 종계인 및 육계인 등 전국의 종계, 육계인들은 자금지원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진정서를 지역 관계인들 명의로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요는 계열업체만 경영난에 봉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한쪽으로 치우쳐 지급되게 되면 일반 종계인들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반발을 일으킨 것으로 본다.

이와 연계적으로 1월 21일 종계인들은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키 위해 안중에서 1차 긴급회의(생산조정 방안과 자금지원건에 대해 논의)를 갖은 바 있으며 다음날인 22일에는 본회 최준구 회장이 농림부를 방문, 차관보 및 축산국장 등을 만나 양계업계의 어려운 실상을 설명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육계 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 계열주체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준것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종계부화업계에도 그에 상응하는 자금지원을 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1월 26일자로 '도산직전의 종계부화장의 긴급구제에 대한 건의'를 양계협회명으로 제출하여 종자를 공급하는 종계부화업계의 도산은 전 양계인의 붕괴를 초래함에 따라 타산업에 우선하여 종계부화장에 긴급운영 구제자금을 지원해 줄것을 서면으로 전달하였다. 각 업체별로 지원금액(389억원중 200억원(51.4%)이하림 배정 등)이 명확히 발표되면서 지난 1월 30일 온양에서 2차 긴급회의를 소집한 종계인들은 특혜성 지원을 지탄하고 자금지원을 중단

해 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서 문안 작성팀을 구성한 후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아 각 기관 단체 및 관계요로에 제출기로 하는가 하면 종계 부화인들은 지난 2월 7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계열업체 긴급 자금지원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종계,부화인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운영자금 지원 배경과 경과현황 보고에 이어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정부 대책(진정서 제출건), 종계분야 자금지원 문제, 계열업체들과의 협상 등이 주요 논제로 대두되었는데 자금이 이미 지원된 상태임에도 '육계계열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라'는 진정서는 제목 및 내용을 검토한 후 종계부화인의 이름으로 정부 및 언론기관 등에 제출키로하고 하림 등 계열업체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종계물량 감축 등 사안을 놓고 계속 협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6명의 추진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앞으로의 현안을 위임받아 일을 추진키로 하였다.

9일 종계업체(대표 김교석)와 계열업체(대표 김홍국)간의 1차협상이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육계 소비감소와 병아리 수급불균형 등으로 불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이라 의견을 모으고 서로 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협의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서로간의 요구사항에 대해 완벽히 수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이틀후에 열리는 각 단체별 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합일점을 찾아갈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의된 서로간의 요구사항을 보면 중계업계에서는 계열업체에 대해 육계 사육비 및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 현재 사육중인 종계의 도태일령을 50주령(처음에는 45주령을 요구)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며 하림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수입한 종계 71,400수분에 상응하는 종란을 지속적으로 처분할 것, 경기회복시까지 자체 주간 입식수수를 70만수로 유지할 것, 중계입식수수 월 5만수 유지할 것, 자체 생산된 병아리 및 종란 판매를 금지할 것(단 시험용으로 대연에 납품하는 2만수 제외), 원종계 및 중계수입을 금지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계열업체 측에서는 중계업계에 종계의 도태일령을 경기회복시까지 52주령으로 할 것, 전 부회장(계열업체 포함)이 월중 일주일간 병아리 생산을 중단할 것, 육용원종계 보유수수를 전체 종계수요량의 90% 수준으로 유지할 것, 종계수입을 하지 말것, 정상적인 생산을 마친 중계계군은 절대로 환우하지 말것 등을 요구하였다.

11일 서로간의 합의를 거친 후 열린 제2차 중계업체와 계열업체와의 만남에서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서로간에 합의되었으나 종계도태시기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간의 중계보유 수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도태시기를 결정하고 합의문이 작성되면 감시위원을 두어 보다 정확한 생산감축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도태주령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면 계열주체에서 중계부화업체에 요구한 52주령된 종계를 도태하라는 요구는 지금까지 중계업계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소시킬 대로 시킨 만큼 자금을 받은 계열업체에서 앞장서 감축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 육계산업 안정화를 위해 중계업계와 계열업체 대표들이 지난 9일 만나 생산감축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입장을 취하고 다만 계열업체에서 요구조건을 수용할 경우 환우계 및 노계는 가급적 빨리 도태하기로 하고 법정 사용기간 이외의 종계사용을 하지 않을 것과 만일 사용할 경우에는 양계협회에 고발창구를 마련하여 원종계장에서 종계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환우를 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산감축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계열업체에서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열업체만 50주령에 도태를 시키는 것은 생산감축의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규모가 큰 20개 농장을 위시로 일반 중계농장들도 참여하여 52주령에 도태를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만약 1개군을 보유한 소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다음 협상에서의 청신호를 예고했다.

이들 후인 13일 23개 대규모 부회장 대표들은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다시 모임을 갖고 협상결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계열업체에서 요구

하는 52주령에 종계를 도태시켜 물량감축에 동참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우를 절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농장별로 각서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후 종계업계는 농장별로 환우를 하지 말것에 대한 각서를 받기 시작했으며 계열업체인 하림도 이미 지난 23일까지 지난해 12월 수입한 71,400수분에 상응하는 물량을 줄여간다는 차원에서 원종계에서 생산된 종란 203,700개(1차-1월말 81,000개, 2차-2월 14일 45,600개, 3차-2월 23일 77,100개)를 폐기처분시키는 등 합의문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감축을 위해 상호간 관심을 보였다.

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종계업계의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고 지난 18일 2차로 원종계 및 종계업계에 90억을 긴급자금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자금은 본회에서 종계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배정이 이루어졌다. 종계업계도 자금을 배정받게 되고 계열회측과 생산조절 협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상 진정서 문제는 이후 거론이 되지 않았다.

결국 종계인들은 감축협상을 위한 마지막 모임을 지난 20일 온양에서 갖은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일 각 업계 실무자들이 본회에 모여 최종 합의문서를 작성함에 따라 한달 이상을 끌어온 마라톤 협상이 어느정도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날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계사육비 및 생계, 초생추 구매대금은 현금 지급토록하며, 만약 어음결제시 구매한 각 농장별로 어음을 발행한다. 2. 현재 사육중인 종계를 종계업체는 52주령('97. 2. 10 기준)

계열주체는 50주령('97. 2. 24 기준) 초과 종계를 전량 도태한다. 3. 종계유효기간(16개월)을 경과한 종계를 사육중인 업체를 고발조치한다. 4. 원종계(G.P.S) 농장은 제 2, 3호를 위반한 종계장에게 종계(P.S) 공급을 1년간 중단한다. 단, 공급중단 대상업체는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5. 종란, 종계(P.S)의 수입 및 종계환우를 하지 않는다. 단, 필요시 별도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6. 종계업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국의 종계보유수수를 파악한다. 확인을 위하여 원종계(G.P.S) 농장은 '96년 이후 분양실적 통보 등 적극 협조한다. 7. 육용원종계(G.P.S) 농장은 별도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필요수수만 분양기로 하며 원종계 보유수수를 적정수로 유지하고 세부사항은 원종계농장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8. 위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는 계열업체와 종계업체와의 합의문이고 하림에 대한 요구사항은 차후 계속 협의기로 하였다. 이번 협상안에서 가장 큰 수확이라면 종란, 종계의 수입 금지, 환우 금지, 법정 유효기간 이후 사육금지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는데 있다.

그러나 계열업체측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한후 최종안을 갖고 재협상을 벌이자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종계업계측에서는 이 합의문을 인정한후 이를 기초로 일을 추진해가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생산조절이 당분간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IMF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업을 이끌어 나아가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양계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